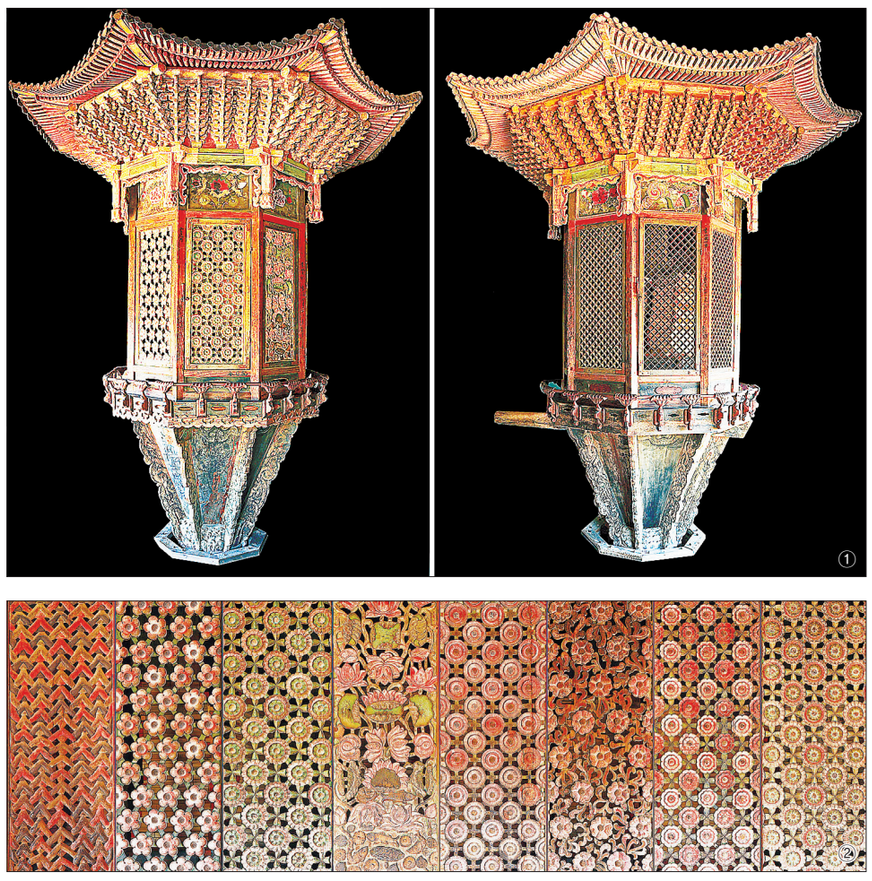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⑰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 한줄 요약
전륜장 제작 배경에는 경전을 보관한 책장을 한 번 돌리는 것은 경전을 한 번 읽은 공덕과 같다고 여기는 전경신앙(轉經信仰)이 바탕에 있다.

국내 유일 회전식 경전 보관책장



①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② 용문사 대장전 향좌측 윤장대 8면의 통판투조꽃살문
③ 윤장대 내부 모습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쌍륜장 형식
고려대장경 국난극복 의지와 상통
창평사, 영동사 등에도 윤장대 유구
윤장대 내부에 팔각 서가시설 장치

윤장대 돌리면 경전 독송 공덕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法)'이라 한다. 범어로는 '다르마'라 하고, 빨리어로는 '담마'라 부른다. 부처님의 설법을 일러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고 표현한다. '전법륜(轉法輪)'의 한자어가 그 의미다. 법은 '삼장(三藏)'에 갈무리하고 있다. 삼장은 '트리피타카(tripitaka)'로서 '세 개의 광주리'다. 세 개의 광주리는 경장과 율장, 논장이다. 세 광주리에 담은 경, 율, 논 일체를 '대장경', 또는 '일체경'이라 칭한다. 대장경은 〈화엄경〉, 〈아함경〉, 〈반야경〉 등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은 물론이고, 승가공동체가 지켜야 할 계율을 모은 율장, 그리고 경과 율을 해석한 논장 등 불교 성전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 규모가 8만 4천의 법문에 이르기에 통상 팔만대장경으로 부른다. 대장경은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달한 야자 잎에 사경한 '패엽경' 같은 필사본도 있고, 대량유통을 위하여 경전을 목판에 새기고 인경하여 펴낸 대장경도 있다. 목판에 새긴 경판은 장경판전에 보관한다. 대표적인 경판과 판전이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이고, 세계유산인 장경판전이다. 나무 판에 새긴 경판은 바람이 잘 통하는 장경판전에 시렁을 마련해서 칸칸이 보존하는 모습을 익히 살필 수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책으로 펴낸 대장경은 어떤 시설에, 어떻게 보관하였을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대장전과 같은 건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산사 불전 중에서 '대장전'의 편액을 달고 있는 곳은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 김제 금산사 대장전이 대표적이다. 통상 서적류는 두 가지 형식으로 책을 보관한다. 하나는 선반을 갖춘 서가의 책장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륜장(轉輪藏) 형식이다. 서가의 책장형식은 붙박이 고정형이고, 전륜장 형식은 회전형이다. 전륜장 형식은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효율의 측면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추체험하는 경전신앙에 있다. 전륜장 제작 배경에는 경전을 보관한 책장을 한 번 돌리는 것은 경전을 한 번 읽은 공덕과 같다고 여기는 전경신앙(轉經信仰)이 바탕에 있다. 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장엄의 공덕이 더욱 특별하다. 이런 전경신앙은 티베트에서 경전 내용을 담은 종 모양의 회전식 통 '마니차'를 돌리는 신앙행위와 상통한다.

한중일 전륜장 모두 팔각형 회전책장

전륜장과 같은 형식은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에 두루 현존한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 10여 기씩 다수 현존한다. 중국 북송대의 융흥사 전륜장(969년), 일본의 안코쿠지(안국사) 경장(1408년) 등이 대표적이다. 두 나라 모두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 일본의 전륜장은 놀이공간의 회전목마를 연상케 하는 팔각형 몸체에 10m 넘는 대형 회전책장이고, 중층 건물에 시설했다.

반면에 한국에선 유일하게 한 점만 현전한다. 그 전륜장이 예천 용문사 윤장대(輪藏臺)다. '윤장대'는 말 그대로 '회전식 경전 보존시설'이라는 의미다. 중국에선 '전륜대장(轉輪大藏)', 또는 '전륜경장(轉輪經藏)'이라 부른다. 중국 북송대 1103년에 간행된 〈영조법식(營造法式)〉 34권 중 권11에는 전륜장의 전형을 그림으로 그려 보이면서 '전륜경장'이라 명명했다. 한중일 세 나라 전륜장의 공통점은 그 평면 형태가 팔각형인 점과 돌릴 수 있는 회전 책장이라는 점에 있다. 바닥에서 천정면까지 관통하는 심주를 회전축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다.

문헌 기록, 또는 절터 유구로는 예천 용문사 윤장대 외에도 네다섯 곳에 더 전륜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문헌기록상 춘천 청평사와 금강산 장안사에도 윤장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안사 윤장대는 15세기 학자 남효온의 기행문 〈유금강산기〉에 보인다. 철구(鐵臼)와 철주(鐵柱), 3층의 몸통으로 구성됐다고 묘사하면서 '대장경함(大藏經函)'이라 불렀다. 청평사의 경우 17세기 문인 장유(1587~1638)의 청평사를 묘사한 시의 한 대목에서 확인된다. "암자 앞에 전경대(轉經臺)만 외로이 남았구나"라는 대목이다. '전경대'는 윤장대의 별칭이다. 더욱이 청평사 회전문 마당엔 '장경비(藏經碑)'의 유구도 있다. '회전문'이라는 독특한 중문 이름도 윤장대와 긴밀하다. '회전문(廻轉門)'의 의미는 불교 경전을 봉안한 윤장대 회전 시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예천 용문사 역시 천왕문 자리에 '회전문'이 있다. '회전문-윤장대'는 서로 긴밀한 불가분의 짝으로 이해된다. 사찰의 건물지에서 윤장대 유구가 확인되는 곳은 영동 영국사와 파주 혜음원지 등이다. 이들 건물지 중심부에는 홈, 또는 십자 홈이 파인 초석이 있고, 그 초석 주변에 원형의 쇠 녹물 흔적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현존하는 실물로는 용문사 윤장대가 유일하다. 더욱이 중국, 일본의 사례처럼 중층 건물에 한 기만 봉안한 형식이 아니라 단층 건물 대장전 내부에 한 쌍을 배치한 형식이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쌍륜장 형식이다. 용문사 대장전은 불교조형 미술사에서 갖는 희소성에 의해 지난 2019년 대장전과 함께 일체형 형식으로 국보로 승격 지정됐다.

대장전과 윤장대 창건부터 일체형

왜 일체형인가? 대장전과 윤장대는 불가분의 일체형인가? 용문사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건물이다. 12세기 창건부터 윤장대를 봉안할 목적으로 지은 전각이다. 회전문 아래 비석군에 〈중수용문사기(重修龍門寺記)〉(1185년)의 비가 있다. 비명에 의하면 계사년(1173년)에 국난극복을 위하여 조응 스님과 자엄 대사가 발원하여 3만승재를 열고, '당삼간'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윤장대 2기를 별도로 안치하였고(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間作), 또 학자 300여 명을 모아 7일 법회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고려 12세기 말 창건부터 대장전과 윤장대는 유기적 일체형으로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 다섯 차례의 중수가 잇따랐다. 다섯 차례 중수 사실은 1767년 기록인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상량문(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에 전한다. 중수상량문의 '창기사'는 용문사의 별칭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계사년 1173년에 창건한 후 1467년, 1534년, 1597년, 1665년에 이어 1767년까지 다섯 차례의 중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중수상량문에는 또한 용문사에 대장전과 윤장대를 설치한 인연설화도 밝히고 있어 성보에 서사의 경이로움을 더한다. "일찍이 인도 고승 구담이 용궁에 팔만대장경전을 안치하였는데 그와 같이 용이 나타난 용문사에 대장전을 지어 그 내부에 전법륜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한 쌍의 윤장대를 만들어 안치했다"는 것이다. 국난극복을 위하여 경전을 새겨 펴내서 인연이 닿는 곳에 보장하는 성역은 고려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 주목된다. 초조대장경, 속장경, 팔만대장경, 그리고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의 건립 등에서 일관된 대응 방식과 염원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보장을 통하여 나라를 수호하고 국난을 극복하려는 불교국가 고려의 한결같은 의지다. 용문사 윤장대는 일련의 고려대장경의 특별한 한 흐름에 있으며, 대장경 봉안에 있어 세상에 둘도 없는 희귀한 형태라 할 것이다.

윤장대는 대장전 목조아미타삼존상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팔각형 목조건축 형태다. 법주사 5층 목탑처럼 중심부엔 원형의 목조 심주가 바닥 아래 초석에서 천정까지 관통한다. 그 심주가 윤장대의 회전축이다. 윤장대는 높이 4.2m, 둘레 3.15m의 규모다. 회전축 심주의 지름은 28cm에 이른다. 제작에 사용한 목재는 대부분 소나무이지만, 심주는 두 기 모두 느티나무를 사용했다.

연꽃 위에 전륜장을 극적으로 봉안

윤장대는 하단부와 몸체, 지붕의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팔각지붕은 법당의 닫집 기법 그대로 제작했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공포가 치밀하다. 층층이, 겹겹이 짜 올린 출목이 여섯 층에 이른다. 훌쩍 솟아올라 상큼하고 쾌적하다. 하단은 그 생김이 독특하다. 팽이 모양의 원뿔형이다. 형태에서 회전체의 물리적 속성을 읽을 수 있다. 원뿔 회전체의 구동성은 몸체 난간 아래 돌출하게 시설한 나무 손잡이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아, 돌릴 수 있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게 된다. 손잡이에 전경신앙 공덕의 손때가 윤이 나도록 묻어있다. 하단의 팔면 모서리엔 새싹의 촉을 가지고 무한히 서로 연결돼있는 넝쿨을 새겼다. 면마다 벽사의 뜻으로 용의 얼굴을 그려 사악한 기운을 막게 했다. 하단 조형에서 맨 아래 조각한 연꽃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연꽃은 연화좌의 의미다. 연꽃 위에 부처님을 봉안한 것과 같고, 사경 표지에서 연꽃 위에 경전명의 명패를 올려둔 장면과 같다. 연꽃 위에 전륜장을 극적으로 봉안했다.

두 기의 윤장대는 안정적인 좌우대칭이지만 몸체의 표현은 비대칭이다. 팔각기둥 몸체는 면마다 투각한 창호를 시설했다. 투각 창호는 통풍을 고려한 장치다. 향우측 윤장대 창호는 빗살문으로, 향좌측의 창호는 꽃살문으로 짰다. 하나는 단순하고, 하나는 기교를 다했다. 불국사 대웅전 마당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형원리와 상통한다. 대칭의 깨짐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조화의 활력이 생긴다. 8면의 꽃살문양은 같은 것이 없다. 솟을꽃살 형식도 있고, 통판투조도 있다. 세세생생 마르지 않는 꽃을 새겼다. 창호를 열면 중심에 원형 심주를 둘러싼 사천주 기둥이 있다. 사천주 아래에 팔각 서가를 설치해서 경전을 포개 얹어 뒀다.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책장이다. 윤장대는 국내 유일의 전륜장 형식의 해장보각이다. 그 속에 지혜의 바다가 있다. 아무리 퍼가도 마르지 않는 지혜와 자비의 바다가 있다. 〈사진작가〉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